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I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I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관세 유예 속 소비심리 호조, 금리 급등세 진정 등으로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7일(화)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EU 관세 유예, 5월 소비심리지수 급 반등, 30년물금리 5.0% 하회 등 우호적인 대외환경 속 엔비디아(+3.2%, 스타게이트 등 AI 프로젝트 본격화 기대), 테슬라(+6.9%, 머스크의 사업 집중 발언) 등 테크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다우 +1.8%, S&P500 +2.1%, 나스닥 +2.8%).

지난 2~3개월 동안 침체 불안을 주입시켰던 것은 소비심리지수 냉각에서 주로 기인했음. 그렇지만 소비심리지수와 같이 설문에 기반한 소프트데이터는 당시의 증시 분위기, 뉴스플로우에 따라 가변성이 크다는 한계점이 존재.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심리지수(98.0pt vs 컨센 87.1pt)가 주식시장 반등, 트럼프의 관세 유예 모드 돌입 등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같은 맥락에서, 향후 발표예정인 여타 소프트데이터(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등)도 호전되는 결과를 시장에 제공할 것으로 판단. 다음주부터는 수출, 고용, CPI 등 미국 관세정책(보편관세 10%)의 여진을 지표 상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구간에 진입하는 하드 데이터 민감 장세에 돌입할 예정(Bad is bad, good is g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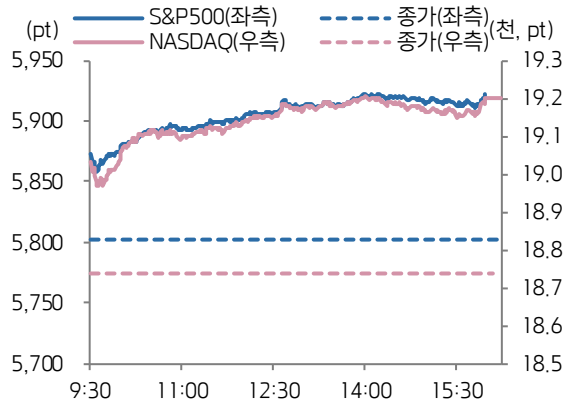
그전에 HBM, 전력기기 등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엔비디아 실적이 대기하고 있음. 일단 엔비디아는 2월 26일 4분기 실적 당시 컨센을 상회했음에도, 딥시크 충격 및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당일 8%대 급락을 맞은 경험이 있기는 함. 하지만 현재는 2월 당시에 비해 엔비디아를 둘러싼 주가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 MS 등 빅테크 업체의 견조한 CAPEX, 트럼프의 관세 유예 등의 호재성 재료를 잇따라 제공받았기 때문. 이에 힘입어 빠른 주가 회복력을 보임에 따라 4월 초 저점 대비 약 40% 상승하면서 135 달러대로 복귀, 전고점(149달러)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제 시장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 관련 포인트는 1) 매출총이익(GPM, 컨센 70%내외, 4분기 실적 때 제시한 가이드스는 71%) 등 수익성 유지 여부, 2) 4월 중 중국항 H2O 수출 제한 여파 3) 2분기 가이드스가 될 것. 다만, 최근 주가 상승과정에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진 측면이 있는 만큼, 컨셉 부합하는 양호한 결과를 내더라도 단기 재료 소진 물량(Sell on)과 같이 수급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NATO의 방위비 증액 가능성에 따른 방산주 강세에도, 직전일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실현 물량 출회, 미 2년물 국채 입찰 경계심리 등으로 혼조세 마감(코스피 -0.3%, 코스닥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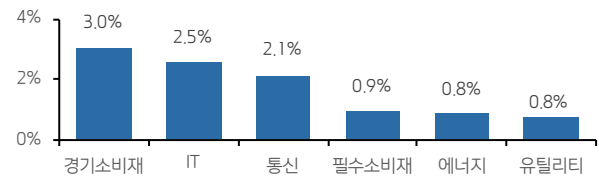
금일에는 EU 관세 유예 재료 기반영에도, 미국 소비심리지수 서프라이즈, 미국 금리 급등세 진정,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 급등(+3.4%)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업종 측면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기대, 스타게이트 본격화 가능성 등이 부각된 반도체 이외에도, 텐센트의 하이브 보유 에스엠 지분 인수(9.4%)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엔터주 전반에 긍정적인 수급 환경을 조성할 전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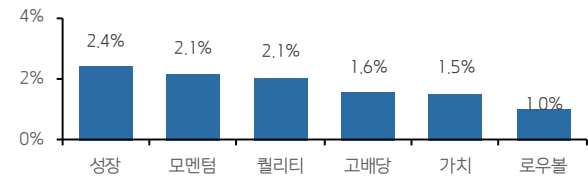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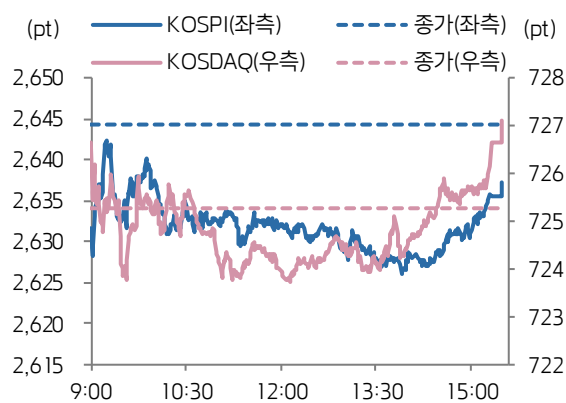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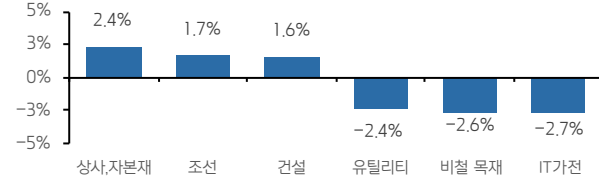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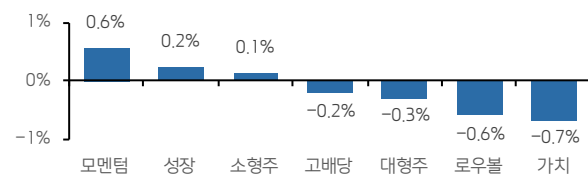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00.21	+2.53%	-19.86%	GM	49.09	+0.82%	-7.61%
마이크로소프트	460.69	+2.33%	+9.72%	일라이릴리	725.22	+1.61%	-5.7%
알파벳	172.90	+2.63%	-8.56%	월마트	97.58	+1.29%	+8.56%
메타	642.32	+2.43%	+9.8%	JP모건	265.29	+1.76%	+11.93%
아마존	206.02	+2.5%	-6.09%	엑손모빌	103.52	+0.48%	-2.01%
테슬라	362.89	+6.94%	-10.14%	세브론	137.83	+0.94%	-2.61%
엔비디아	135.50	+3.21%	+0.91%	제너럴일렉트릭	97.58	+1.3%	+8.6%
브로드컴	235.65	+3.03%	+1.95%	캐터필러	351.51	+2.36%	-2.28%
AMD	114.56	+3.85%	-5.16%	보잉	201.03	-0.66%	+13.58%
마이크론	96.38	+3.22%	+14.67%	넥스트에라	68.04	+0.4%	-4.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37.22	-0.27%	+9.91%	USD/KRW	1,376.50	+0.44%	-6.51%
코스피200	351.28	-0.24%	+10.53%	달러 지수	99.52	+0.59%	-8.26%
코스닥	727.11	+0.25%	+7.21%	EUR/USD	1.13	-0.52%	+9.41%
코스닥150	1,179.67	+0.69%	+4.41%	USD/CNH	7.19	+0.18%	-2.02%
S&P500	5,921.54	+2.05%	+0.68%	USD/JPY	144.33	+1.04%	-8.19%
NASDAQ	19,199.16	+2.47%	-0.58%	채권시장			
다우	42,343.65	+1.78%	-0.47%	지수	가격	DTD(bp)	YTD(bp)
VIX	18.96	-7.83%	+9.28%	국고채 3년	2.332	-1.5bp	-26.3bp
러셀2000	2,090.40	+2.48%	-6.27%	국고채 10년	2.705	-6.5bp	-16.6bp
필라. 반도체	4,861.09	+3.38%	-2.39%	미국 국채 2년	3.981	-1bp	-26.1bp
다우 운송	14,831.24	+2.03%	-6.7%	미국 국채 10년	4.444	-6.7bp	-12.5bp
상해종합	3,340.69	-0.18%	-0.33%	미국 국채 30년	4.951	-8.6bp	+17bp
항생 H	8,469.97	+0.38%	+16.19%	독일 국채 10년	2.532	-2.8bp	+16.5bp
인도 SENSEX	81,551.63	-0.76%	+4.37%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지수	가격	DTD(%)	YTD(%)
Eurostoxx50	5,415.45	+0.37%	+10.61%	WTI	60.89	-1.04%	-12.82%
MSCI 전세계 지수	881.16	+1.24%	+4.73%	브렌트유	64.09	-1%	-14.13%
MSCI DM 지수	3,869.06	+1.45%	+4.35%	금	3,328.30	-1.95%	+22.5%
MSCI EM 지수	1,164.10	-0.52%	+8.24%	은	33.15	-0.89%	+13.35%
MSCI 한국 ETF	59.98	+1.73%	+17.86%	구리	471.00	-2.01%	+16.98%
디지털화폐				BDI	1,340.00	-0.07%	+34.4%
비트코인	109,615.90	+0%	+16.97%	옥수수	459.50	+0%	-1.97%
이더리움	2,669.32	+3.97%	-20.24%	밀	528.50	-2.58%	-7.2%
				대두	1,062.50	+0.21%	+2.68%
				커피	361.70	+0.19%	+17.2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2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서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